

대구 주보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예수 성탄 대축일 2016.12.25.(가해) 제2031호



에스테반 무리오, 『성탄』(1665-70), 유화, 휴스턴미술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요한 1,9)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깊은 겨울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미 2천 년 전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기념하며 해마다 성탄절을 지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긴 동지(冬至) 가까이 성탄을 지내는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은 더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빛이 사람이 되시어 오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혼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무척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측근 비리와 부정에 연루되어 탄핵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정치적인 혼란은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겨울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더욱 힘겨운 삶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서문시장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는 대구지역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기 침체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무겁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빛은 희망입니다.

빛은 세상을 밝게 비추고 추운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 줍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불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고 차갑게

얼어붙은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희망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절망이 가득한 곳에 희망이 되십니다. 눈물이 가득한 곳에 위로를 주십니다. 불의와 부정부패의 어둠이 가득한 곳에 밝은 정의의 빛을 비추십니다. 이러한 참 빛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 성탄의 의미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희망은 젊은이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희망 또한 젊은이들입니다. 올해의 사목교서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에서 강조한 것처럼 젊은이들이 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를 통해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른 청소년,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희망의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와 세상에 희망을 전해 주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에 빛을 밝힙시다. 이 빛은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빛은 먼저 나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주며 기쁨과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빛이 되어 세상을 밝혀 주고 따스하게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 5,14)

2016년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 환 길(타대오) 대주교

† 조 환 길 타대오

제16회 가정 성화 주간 담화문(요약)

가정과 기도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마태 2,21-23)

성탄축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교회는 가정 성화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나자렛의 성가정을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느님께서도 오늘날에도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온갖 위협으로부터 가정을 수호하도록 그리스도인 부부와 그 가정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가정의 가장인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안에 머무실 때, 비로소 우리도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물면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생활에서 잠시 물러나 주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을 비추어주고 유지시켜주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요한 6,68 참조).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과 대화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각자와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몫입니다(루카 10,42 참조). 이러한 대화의 노력과 시간은, 가정이 겪는 갈등과 위기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줍니다. 기도하는 남편은 자기 아내와도 대화할 것이며, 기도하는 아내 역시 남편에게 귀를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와도 대화하며, 기도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귀 기울일 줄 압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하는 부부는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고,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상을 남겨줍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가정은 주님 안에 머물습니다. 기도하는 가족은 하느님을 알게 되고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며, 더 큰 가정인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서 사랑과 용서를 배우며, 배려와 개방의 자세를 익힙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람과 원의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자신의 시간과 삶을 기꺼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기도에 충실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일치하게 되며, 교회생활과 사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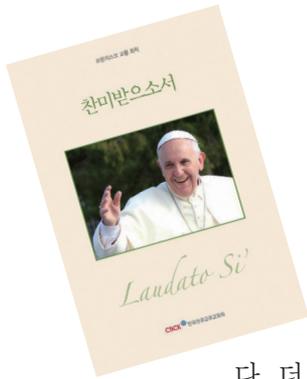
올해 가정 성화 주간을 보내면서 모든 그리스도교 가정이 아기 예수님을 위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머무르시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생명력이 넘치고,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미래는 신앙의 빛으로 찬란하게 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나자렛 성가정을 통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조 환 길(타대오) 대주교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 큰 것입니다

신중호 분도 신부 | 정평본당 주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 느끼는 공허함은 많은 경우에 욕망을 키웁니

다. 더 많이 먹고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 집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사회 규범도 종종 무시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진선미를 향한 억누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주신 은총이 이 세상 생태를 향한 관심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사소하고 작은 우리의 발걸음들, 무엇이든 쉽게 남기거나 버리지 않고 절제하는 일들, 나무를 돌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탄하는 일들은 우리의 존엄을 표현하는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찬미반오소서』 211항 참조). 이러한 노력들은 민들레 흩씨가 날리듯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하느님께서 주신 이런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여 키워온 것이 아니라 사실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당의 일에 헌신적이고 기도에 전념하는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것을 앞세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요? 또 어떤 분들은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본당 행사 때에 설거지할 번거로움을 없애려고 일회용 그릇이나 컵을 쓰고 버리는 것이 당연한가요? 그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믿으면서요.

이러한 경우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생태적

회개입니다.”(『찬미반오소서』 217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회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맺는 관계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공동의 집을 대함에 있어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와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 겸허하게 인정할 때 회개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공동체 관계망들 안에서 사회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에 필요한 생태적 회개는 공동체의 회개이기도 합니다.”(『찬미반오소서』 219항) 우리는 하느님께 세상을 사랑으로 선물 받았 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세상의 피조물을 기꺼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풀잎 하나라도 그 앞에 차분히 머무를 때 우리는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작은 것이 큰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3)

우리의 신앙은 단순함과 소박함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길을 안내합니다. 단순과 소박한 삶은 우리를 평화와 해방의 길로 인도합니다. 날마다 만나는 모든 아름다움에 경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동안 프란치스코 교황님 회칙 『찬미반오소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많이 미흡했습니다. 교황님의 회칙을 꼭 한 번 읽어 보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필문**

햇볕 한 줌

가난의 정의

돈이 많은 부자 어머니가 어느 날 딸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교외로 나갔습니다. 모녀는 작은 농장을 꾸리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느 가난한 집에 며칠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여행 어땠니?” “정말 좋았어요. 엄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겠지?”

“그럼요.” 딸이 대답하자 어머니가 다시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뭘 배웠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러자 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그 집에는 개가 네 마리나 있었지만 우리 집에는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 뒷마당에는 넓고 큰 수영장이 있지만 그 집에는 바로 코앞에 끝도 없이 흐르는 시냇물이 있어요. 우리는 정원에 등불이 있지만 그 집은 한밤중에 한가득 별들이 환하게 비쳐 줘요. 우리 집 마당은 울타리로 막혀 있지만 그 집 마당은 수평선까지 이어져 있어요. 우리 집이 세워진 집터는 매우 좁지만 그 집이 세워진 들판은 끝도 없이 넓어요. 우리 집에는 밥 해주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작물을 키워요. 배고플 때 우리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가야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정원에 자라는 음식들이 있어요. 우리 집은 안전을 위해 담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분들은 담벼락 없이 이웃들과 오순도순 잘 지내요.”

어머니가 아무 말이 없자 딸이 다시 덧붙여 얘기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되었어요.” **꺾은**

「가난한 자는 적게 가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이다.」 - 피터 로제거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입당송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 제1독서 [이사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 화답송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제2독서 [티토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2,1-14]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 영성체송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예수 성탄 대축일

▲ 입당송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관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 제1독서 [이사 52,7-10]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화답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제2독서 [히브 1,1-6]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알렐루야.

▲ 복음 [요한 1,1-18]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 영성체송 [시편 98(97),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주변에 홀로 사는 이들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 주겠습니다.”

모두 모두 기쁜 성탄되시길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26일(월) 11:00 도량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12월 27일(화) 14:00 신암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26일(월) 11:00 계산성당		12월 27일(화) 19:30 다사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12월 후원회미사	12월 26일(월) 11:00 수성성당		12월 28일(수) 10:00 죽도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2월 28일(수) 10:00 평화성당		12월 28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대리구 소식

2017년 3대리구 성경대학 신입생 모집

낮반: (수) 14:00~16:00
 저녁반: (수) 19:30~21:30
 수강료: 1학기당 6만원
 마감: 3.8(수)
 문의: 3대리구청, 641-5678

성소 | 피정

고등학생을 위한 예수회 성소 피정

기간: 1.20(금)~22(일)
 장소: 예수회센터(서강대 옆)
 대상: 남자 고등학생(중3 졸업생 포함)
 문의: 김스테파노 수사, (010)6245-1608

교육 | 모집 | 기타

빛떼제 기도

일시: 1.14(토) 18:0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식사, 폐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신청: (010)9286-2247

2017 겨울씨성서모임 신입생 모집

본과: 구약반 (금) 10:00 / (월) 20:00
 신약반 (월) 10:00 / (목) 20:00

심화반 (월) 10:00 / (목) 20:00

문의: (010)4107-4627 / (010)6520-4627

미혼모자시설 가톨릭푸름터 입소

미혼의 임신부·출산 6개월 미만의
 도움이 필요한 여성(무료 시설)
 주거·의료, 출산, 직업훈련교육 등
 전화, 인터넷, 내방상담 가능(황금동)
 문의: 764-8537 / www.ggum1004.com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이용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자녀)
 문제 등 / 방법: 전화 및 내방상담(무료)
 문의: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제9기 성교육강사양성 교육과정 모집

기간: 1.16(월)~20(금)
 교육: 학교 성교육 자원활동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653-7755, <http://www.dgsay.net>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 건강보험

보건복지부선정 의·한협진 시범 병원
 의과와 한의과 진료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문의: 670-600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여대생 기숙사 과달루페집 모집(종교무관)

위치: 대전 서구 갈마로 187-1(괴정동)
 주최: 성체선교클럽라라수녀회
 문의: (042)534-8876

2017 가톨릭상지대학교 신입생 정시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정시1차 접수: 1.3(화)~13(금)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
<http://ipsi.csj.ac.kr>

2017 목포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정시 모집

보건복지교육계열 4년제, 취업 잘되는
 대학, 최신 아파트형 기숙사 입사 가능
 원서접수: 12.31(토)~2017.1.4(수)
 모집학과: 가군 간호학과 20명
 문의: (061)280-5108 / 5150

Legend of Royal Rex Diamond
 더렉스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감사선물 · 프로포즈 반지)
 대표 임 미 순(마리아)

♥ 교통중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수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개원 30주년
달성피부과

BF PNT영양치료실/화상·흉터클리닉
 1F 아토피센터/대상포진통증클리닉
 2F 오프오피스킨케어/여드름클리닉
 3F 레이저/보톡스/리프팅 동안센터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김민주(레지나)
 7호광장 두류역 2번출구 ☎ 566-4333

32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내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결혼명가
노블코리아
 종신 잘하는 집!

미팅회사 채용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옥순(요나단) 영주(젬마)
 동대구역 신세계 부띠끄티티II 드라마트 10층 14호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중훈 (바오로)

원주입원 아토피·알레르기·사마귀·티눈·건선·무좀
 피부미용 여드름·흉터·기미·잡티·모공·보톡스·필러·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존빌딩 3층 (구,달성군청)
 1호선 삼당역 3번출구 T.053) 651-8800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입

경일신경과·내과

대표전화 053) 652-2525
 2호선 내당역 2번 출구 (홈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 치매 / 뇌졸중 상담 268-2525
- M R I 예약 262-2525
- 위/대장 내시경, 성인병 종합검진

HS 히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행사 | 모임

정미연 화백 성화 초대전

기간: 12.22(목)~2017.1.12(목)
장소: 범어대성당 드망즈갤러리
부제: 하느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 2016, 에밀타케 신부를 다시 만나다.
문의: (010)6501-4433

바뇌의성모기도회 월레미사

가난한 이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발현하신 성모님
일시: 12.29(목) 14:00 기도, 15:00 미사
장소: 삼덕성당
문의: (010)5669-7027

2박 3일 청소년 성령 세미나

기간: 1.13(금) 16:00~15(일) 16: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고령 월막)
신청비: 7만원(차량이용비: 1만원 별도)
신청: (054)954-0951 / (010)4078-4688
송년 철야: 12.30(금) 21:00

교육 | 모집

틴스타 지도자과정 워크숍

기간: 1.10(화)~13(금)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마감: 1.6(금)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37
http://cafe.daum.net/teenstar85

대구ME주말-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47차ME주말: 1.6(금)~8(일)
348차ME주말: 1.20(금)~22(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고전무용-장구, 오카리나, 발성법,
성가반주_오르간·클래식기타·하모니카,
심리상담사2급, 왕초보관광영어, 소설창작,
제대꽃꽂이·꽃꽂이, 미술심리상담사2급,
동화구연, 원어민영어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성가반주법, 우쿨렐레, 통기타, 바
이올린, 플루트, 성인생활영어회화
문의: 476-6211(지하철 1호선 교대역)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내집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곳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위치: 달성군 논공읍
문의: 615-2141 / 616-2141~2

채용 | 안내

삼덕유치원 교사 채용
자격: 유치원 2급 정교사 소지자
또는 경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010)5446-1416

성요셉요양병원 간호사 채용
대상: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간호사, 면허
증소지자 / 업무: 병동환자관리(3교대)
기타: 1인 기숙사 제공, 교통비 지급
문의: 610-3623 / (010)9391-2643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지수, 공혜남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고성성당 성전기금마련 흥진경더김치 판매
맛있는 김치 먹고 벽돌 한 장 봉헌하기
인터넷보다 더 저렴합니다.
문의: 고성성당, 352-1421

대구가톨릭평화방송(FM 93.1) 라디오 프로그램 안내 (주파수: 포항 96.9MHz, 김천 100.5MHz, 안동 100.7MHz)		
행복한세상931 월-금, 11:05~12:00	그대에게평화를 1부 월-금 14:00~15:00	대구평화음악실 월-금 17:15~19:00
주간가톨릭매거진 토, 일 11:00~12:00	신앙특강 토, 일 14:00~15:00	
행복한신앙생활 토 17:15~18:00	본당순례_우리본당은요 토 18:05~19:00	

통합의료진총원
전인병원
Comprehensive & Integrative Medicine Provider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진료: 일반외과, 혈액종양내과, 재활의학과
과목: 마취통증의학과, 한방내과
병원장 손기철(베드로 다미아노) 신부
대표전화 053)670-60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우리아이 아플때?
한영한마음아동병원
손찬락(라파엘) 병원장/의학박사
경 일: 아침 9시 ~ 오후 11시
토요일: 오후 2시 ~ 오후 9시
한영한마음아동병원
경북대병원 3층 307호 / 대구광역시 중구 동문로 150-15
문의: 053-273-2777 / 053-273-2722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0-3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 중 문(파비올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스라엘 일주
출발일: 2017년 2월 11일(토)
이스라엘 · 요르단
출발일: 2017년 4월 22일(토)
T. (053)253-3399
조혈래(유스티노)
홍미희(안젤라)

발아플면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감기출연/성장(식욕부진·수면장애)/아토피/야호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사
동국대한의학과 외래교수 김성철(비오)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메디타워 4F

다비드제통외과
비수술적 척추, 관절, 신경, 인대 치료 전문
물리치료에 잘 낫지 않는 난치성 통증 전문
원장 권영득(다윗)
Tel : 053)351-1704
칠곡 동아백화점 사거리
지하철 3호선 칠곡중앙역에서 도보 10분

골동품 · 민속품
고가 매입, 문의 환영
문송갤러리 김대운(요셉)
위치: 건들바위 네거리(무료김정)
☎ 053)474-3050